



신구의 조화 올 시즌이 끝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삼성의 미래 구자욱(왼쪽)이 26일 대구 NC전 5회말 3점 홈런을 때린 뒤 대기타석에 있던 이승엽과 세리머니를 함께 했다.

kt, KBO 사상 첫 100패 당하나

92경기 63패…승률 0.315

특별한 복귀 전력·반등 계기 없어 더 막막
중위권 팀들의 '승리자판기' 신세 벗어나야

10위 kt는 26일까지 92경기에서 단 29번 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승률은 3할을 갓 넘겼을 뿐이다. 9위 한화에도 제법 큰 차이가 난다. 이번이 없는 한 kt가 올 시즌 끝까지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 큰 문제는 KBO 역사상 시즌 첫 100패라는 치욕적인 숫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즌 99패 페이스

kt가 26일까지 기록한 0.315의 승률로 시즌을 마감한다면 45승99패를 기록하게 된다. kt는 팀 당 144경기 시스템에서 1군에 데뷔한 유일한 팀이다. 2015년 1군 첫 시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후반기 반등에 성공하며 52승91패1무

승률 0.364로 시즌을 마쳤다. 2016년에도 외국인 전력의 연이은 부상과 부진 속에 53승89패 2무 승률 0.373을 기록했다.

조범현 창단 감독은 2015시즌을 앞둔 스프링 캠프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계산을 해보니 최악의 경우 100패를 당할 수도 있다. 리그 평균화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 당장 올해보다 몇 년 후를 생각하고 팀을 만들어야 하지만 100패는 절대 안 된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kt 2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김진욱 감독은 전임자와 큰 차별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전략적인 측면 보다는 “활기찬 클럽하우스 문화”, “감동을 줄 수 있는 야구”, “새로운 투·타 주축 전력 발굴”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오히려 리그 정상급 선발 투수 라이언 피어밴드(7승8패 방어율 2.93)와 올스타 마무리로 성장한 김재윤(13세이브)이 있지만 성적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

●더 강해진 중위권 팀과 시즌 첫 100패

KBO리그 역사상 시즌 100패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팀은 2002년 롯데다. 삼성과 KIA가 6할 이상 승률을 기록한 그해 롯데는 133경기에서 단 35승을 올렸고 1무97패를 당했다. 시즌 최종 승률은 0.265였다. 최근 KBO리그는 혼전에 빠진 중위권 팀들이 연이어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고 부상전력이 돌아오는 등 전반기에 비해 전력 이 더 강해지고 있다. 9위 한화도 알렉스 오간다가 8월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복귀 전력도 없는 상태다. 이명을 요구한 한 해설위원은 “KIA와 NC의 1~2위 싸움이 치열하고 3위부터 7위까지 중위권에서 혼전이다. 막판 순위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상대 팀 입장에서 kt와 경기는 무조건 이기려고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김진욱 감독은 따뜻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만 위기 대처 능력은 아직 불분명하다. 시즌 100패는 현실이 될 수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야구공 잡으면 기념품 되는데 축구공 가져가면 절도죄…왜?



Sports & Law Story

양종진 부장검사
법무부 법질서전진화과장

7000원짜리 야구공. 팬서비스로 제공
개당 20만원 비싼 축구공은 구단 소유

1921년 5월 16일 뉴욕 자이언츠의 팬 루벤 버만(Reuben Berman)이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버만은 필드와 가까운 좌석에 앉아 있다가 날아든 파울볼을 잡았다. 잠시 후 홈팀 뉴욕의 보안요원이 찾아와 주운 볼을 돌려달라고 했다. 버만이 거절했음에도 보안요원은 계속 볼을 돌려달라고 했다. 화가 난 버만은 볼을 뒤쪽으로 던져버렸다.

이후 버만은 관중석에서 끌려나와 엄한 훈계를 들었다. 그리고 티켓을 환불받은 뒤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공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버만은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중석으로 넘어온 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2만 달러를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구단은 버만의 행위가 ‘무질서하고 신사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구단이 버만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달러를 주고, 파울볼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라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티켓을 끊고 들어온 야구팬이 파울볼을 가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루벤의 소송 이후 각 구단의 정책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관중석으로 넘어온 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에서 사용된 볼을 얻는 것은 관중들에게 경기를 관전하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팬들을 야구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구단들이 이러한 점을 깨달은 것도 정책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공의 가격

야구공은 한 경기에 180~200개 가량 사용한다. 공 가격은 1개에 7000원 가량이다. 예전에는 한번 사용한 공을 재사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1군 경기에서 재사용하지 않는다. 스크래치로 인해 공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K리그의 경우 한 경기에 10개의 축구공을 사용한다. 심판이 1개의 공을 가지고 들

어가고 나머지는 볼보이들이 가지고 있다. 터치라인 아웃이나 골라인 아웃이 되면 즉시 교체해 넣어준다. 공 1개의 가격은 20만원이 조금 안 된다. 게임을 하다보면 거의 사용하지 않은 공도 있다 보니 일부 공은 다음 경기에 재활용한다.

KBL은 한 경기에 3개 정도의 공을 배정한다. 공기압이 잘못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음 사용한 공을 계속 사용한다. 가격은 축구공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다른 경기에 비해 재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기 때문이다.

배구도 축구, 농구와 비슷하다. 한 경기에 5개의 공을 사용하는데, 개당 가격은 7만원 가량이다. 상태가 좋은 공은 다음 경기에 재활용하기도 한다. 몇 해 전 일부 구단에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관중석으로 날아간 공을 회수하는 대신 다른 공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경기 전 감독관이 공기압이나 외형 등을 살펴본 후 시합구에 사인을 해 인증하므로 시합구를 쓸 순 없기 때문이다.

●축구공은 가져가면 절도죄

야구의 경우에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관중들에게 기념품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개당 7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런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것이다. 또 정책이 오래되다 보니 관중들도 의례히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종의 관습법이 된 셈이다.

따라서 야구공은 타격 전에는 홈구단의 소유지만, 타격 이후 펜스 밖으로 공이 넘어간 순간 구단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주물(無主物)이 되어 민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해 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 베리 본즈의 73호 홈런볼이나 이승엽 선수의 55호 홈런볼 습득자가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야구 이외의 경기에서 관중석으로 날아온 공은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홈구단의 소유다. 따라서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공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구단에서 기념품으로 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절대적이진 않다. 공이 좀 더 싸지거나 구단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기념품으로 제공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 정책도 법률도 변하는 것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위니아 초절전 인버터 냉·난방기

특별할인행사중

초절전 1등급에너지효율 인버터 냉·난방기

전기료절감 NO!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 초기비용0원 - 최장36개월 장기할부
- ◆ 공장,업소,교회,사무실 무료방문견적
- ◆ 초강력 냉방,난방,제습 능력
- ◆ 저소음 컴프레서 장착으로 실내에서도 저소음
- ◆ 전문 설치팀이 원하는 일자에 방문설치
- ◆ 본사전국유통망에 더욱 확실한 A/S
- ◆ 절감된 전기료만으로 기계값이?!

냉난방기 전문판매기업
소선공조

상담문의 ☎ 1577-9486 (전국어디서나 무료)